



고용노동부



세상의
다름을
공존으로

도슨트 정우철

Vol. 586

MARCH 2024

Vol. 586

월간 **내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03 March 2024
Vol.586

Contents

2024.03

Vol.
586

세상의
다름을
공존으로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디자인 경성문화사



Special

고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전환의 방향

04

토픽에세이

세상의 다름을 공존으로

08

우리사이

퇴직연금제도, 제대로 알고 있나요?

10

어쩌다 우린

창업자와 근로자, 소비자 모두의 공존을 위해
(쥬엠브로컴퍼니

14

내일인터뷰

그림과 화가, 관객을 스토리로 이어주다
정우철 도슨트

Move

우리 사회의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가치있는 이야기

18

고용이카이프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22

내일, 매일

나의 얼굴을 밝히는 컬러 찾기
이세령 퍼스널컬러 컨설턴트

26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정책

취업애로청년의 도약을 지원하다

28

일터애(愛)서

무료교육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하기

30

희망브릿지

중장년을 위한 취업 서비스는 따로 있다

32

환경실천연구소

호텔, 환경을 생각하다



Wave

오늘의 변화 속에서 펼쳐지는
유용한 정보와 내러티브

34

트렌드 프리뷰

시로 만든 이미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까?

36

내일, 체크

힙지روه에 이어 '합'해진 청량리

40

MOEL 뉴스

44

팩트폴니스

코앞으로 다가온 인구위기

46

잡, MBTI

전문·기상학연구원

48

넬톤

내가 편안해지는 마음가짐 & 함께 살아가기

50

WEVENT

초성퀴즈 & 독자 라운지

세상의 다름을 공존으로

과거는 지나가나, 현재와 미래는
지난 과거들이 모여 존재한다.
낡고 오래된 것일수록 세련되지 못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만 달리해도
여기에는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다.

허름한 골목, 오래된 간판,
투박한 골목 사이로
현대적 감성과 과거의 역사가 공존할 때
뉴트로라 불리는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한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존재할 때 빛이 나는 것처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곳을 향해 걷는다면
이것 역시 멋진 공존이자 미래가 될 것이다.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근로자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함께 꿈꾸는 내일의 공존은 이뤄질 것이다.

퇴직연금제도, 제대로 알고 있나요?

근로자의 퇴직금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에는
DB형, DC형, IRP 3가지가 있다.
각각의 장, 단점과 주의사항 등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글 안지연 노무사(노무사사무소
현답 대표 공인노무사)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 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노후자금 기능 상실, 기업도산 시 수급권 보장 취약, 기업의 재무관리 어려움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며, 기존 퇴직금제도에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퇴직급여제도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니 참고하자.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일시금 지급을 연금의 형태로 전환해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기업입장에서도 퇴직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의미한다.

다양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plan:DB형)'는 현행 퇴직금처럼 퇴직 후 받을 연금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노사합의로 증액가능)로 미리 확정해서 적립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과거 퇴직금제도와 특별한 차이는 없다. 하지만 퇴직금이 회사 내에 적립되어 있지 않고 전문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도산위험이 적고 정보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서 선택하기에 적합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DB형은 대기업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으며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제도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plan: DC형)'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매년 일정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주식 등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과 유사한 제도이다. 즉, 회사는 근로자의 연봉의 1/12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근로자가 그 자금을 운용해 퇴직 시 적립된 금액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제도다. 운용을 잘하게 되면 확정급여형에 비해 더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운용을 잘못하는 경우 확정급여형에 비해 더 낮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운용을 하는 근로자의 금융지식이나 운용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수령하는 퇴직금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 확정급여형과 다른 중요한 차이로 할 수 있겠다. DC형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커 단기근속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 불입하고 세제혜택을 받으며 DC형과

같이 근로자 책임과 권한 아래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 가능하며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다. 명칭은 퇴직연금이지만 개인연금에 가까운 제도로 종전 IRA(개인퇴직계좌, 상시근로자 3-40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이동시에도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퇴직적립금을 누적하여 통산)가 변경된 것이다. IRP는 DC형과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하여 통산하는 기능 외에 가입대상이 확대되고(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등), 자기 부담으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한 제도가 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DB형을 운용하다가 임금피크제에 걸리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 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퇴직급여 감소 예방이 가능하다. 반대로 DC에서 DB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DC형의 경우 DB로 전환되면 DC형의 운용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DC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의 근로자의 운용 성과가 회사에 전가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다만 DC에 있는 기본 적립금은 남겨두고 DB형을 새로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DC형을 운용을 하다 손실이 생길 경우 DB형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손실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다. DC형에 쌓여 있는 적립금은 그대로 둔 채 DC형으로 계속 운용하고 새롭게 가입한 DB형은 DB형대로 운용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DC와 DB형 제도를 모두 도입한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DB형과 DC형을 모두 가입할 수도 있다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두 제도를 혼합해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는데 이를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라고 부른다. 혼합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이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각각의 제도에 적립금을 얼마씩 납입할지 그 비율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DB형 50%, DC형 50% 식으로 납입 비율을 정하여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자와 근로자, 소비자 모두의 공존을 위해

(주)엠브로컴퍼니 임형재 대표

외식 프랜차이즈 엠브로컴퍼니는 공유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활동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기업이다. 프랜차이즈 사업 외에 가맹주와 근로자의 적절한 매칭과 교육과정을 통해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실천하고 있다.

글 정자은 사진 오충근

프랜차이즈는 가맹주에게 그 브랜드의 상호나 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정한 자격과 교육을 받은 이에게, 일정 지역에서 영업권을 주어 시장 개척을 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주변에서는 치킨이나 국밥, 떡볶이 등 다양한 브랜드 사례를 접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를 통해 건전한 생태계가 이뤄진다면, 창업을 꿈꾸는 가맹주와 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공존이 이뤄질 것이다.

건강한 프랜차이즈 환경을 위해

엠브로컴퍼니는 400여 개의 직가맹점과 20여 개의 브랜드를 보유한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엠브로컴퍼니 임형재 대표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필두로 에듀테인먼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5개의 사업체를 동시 운영하고 있다. 외식 브랜드 관련해 수백 개의 직영/가맹점을 지휘하는 사업가이면서 창업과 홍보 트렌드, 운영노하우까지 틈틈이 공부한다.

“얼핏 들으면 프랜차이즈 사업과는 별도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외식 프랜차이즈와 연계되는 사업 영역입니다. 예로 엠브로컴퍼니에서는 ‘곱떡치떡&짬뽕짬뽕’ 브랜드를 운영합니다. 한 매장 사장님이 직원을 구하고, 외식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가 있을 텐데요. 중간에서 적절한 매칭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CCP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와 홀 안에서 일하는 직원은 각자의 부담감을 갖고 있다. 엠브로컴퍼니를 중심으로 교육사업을 연계해, 직원이 매장에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중간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또 근무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체크해주며,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인 동기여부도 배려한다.

“외식업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먼저 받게 한 후 직원이 필요한 가맹점에 매칭을 해줍니다. 조리와 배달, 서빙 등 기본정보와





소비자와 가맹근로자가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고 향후 인프라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하우, 환경에 대한 이해가 된 이후의 적응도는 상당하거든요. 가맹점 대표도 보다 효율적으로 직원 관리를 할 수 있고요. 프랜차이즈를 넘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실천하고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여,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이처럼 엠브로컴퍼니는 자사인 ‘공사일공에프엔비’와 ‘더바른푸드’와 함께 ‘찜꿍찜닭’, ‘냉면대가’ 등의 여러 브랜드를 운영한다. 외식-문화 융합 프로젝트를 통칭하는 CCP(Change Chicken Project)를 통해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외식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적으로 상생하는 외식문화를 지향한다.

CCP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간매칭 플랫폼 ‘(주)공생공사’와 협업해 플리마켓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런 활동으로 지난 2021년 11월에는 고용안정과 복지 증대, 혁신경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으로 선정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엠브로컴퍼니는 근로자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독려, 지원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사는 일차원적인 개념을 넘어 ‘상생과 소통’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가맹근로자가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고, 향후 인프라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 같습니다.”
 임 대표는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외식시장에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희망리턴패키지 e러닝콘텐츠’를 기획해 참여하고 있다. 또 라이프해킹스쿨 등 온라인 클래스, 다양한 방송 채널을 통해 인큐베이팅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가치는 나눌수록 더욱 견고해진다고 생각합니

다. 첫 사업은 8평짜리 작은 매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상품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 사업의 기본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브랜드 문화와 가치를 함께 제공했을 때 찾아오는 성취감은 그 이상의 가치를 많은 이들에게 전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공존이 많아지길 바라며 엠브로컴퍼니는 앞으로도 매진할 계획입니다.”



엠브로컴퍼니 지예림 디자인 실장 미니 인터뷰

Q 엠브로컴퍼니 입사하게 된 계기 규모가 큰 기업부터 외국계, 여러 형태의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외식업과 브랜딩에도 관심이 생겼고, 비전이 보여 엠브로컴퍼니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Q 회사를 다니며 직원으로서 인상적인 부분이나 장점이 있다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 사회공헌활동이나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친다는 생각이 들 때면, 일하는데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림과 화가, 관객을 스토리로 이어준다

꿈과 현실은 한 곳 차이 아닐까. 마음속으로 바랄 땐 꿈이지만, 이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는 순간 현실이 된다. 그림 해설가, 정우철 도슨트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매일 노력했다.

글 정자은 사진 김경수

정우철 도슨트



세상에 우연은 없을지 모른다.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같은 우연도 결국은 노력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정우철 도슨트도 한때는 직장인이었다. 20대 후반 자신과 더 잘 맞는 일을 찾고 싶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 끝에, 그의 가슴을 스친 것은 도슨트라는 직업이었다. 겉보기에 그는 운 좋게 인기 있는 도슨트가 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누구보다 처절했고 열정적이었다. 노력으로 기회를 만든 정우철 도슨트를 만났다.

Q 미술 전시부터 방송프로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국회방송 <우리동네 미술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조수빈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예술명소를 찾아가는 미술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친근한 설명으로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생활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3월 21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스웨덴 국립미술관 컬렉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올해는 한국사이버외대에서 1학기 강의를 맡았습니다. 미술과 관련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Q 첫 방송활동은 EBS 클래스@의 <도슨트 정우철의 미술극장>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올림종이 꽤 사라진 편인데요. 사실은 첫 방송에서는 많이 떨렸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노력형'인 것 같습니다. 그림 해설도 관객의 이목을 끄는 일이지만, 메인은 그림이니까요. 강연이나 방송은 도슨트의 연장선을 위한 첫 도전이었습니다.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혼자 연습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처음은 누구나 서툴잖아요. 포기하면 멈추지만 계속 노력하면 또 다른 제 모습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무엇이든 부딪혀봐야 자신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Q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베르나르 뷔페>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시를 계기로 정우철 도슨트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작품 위주의 설명방식에서 벗어나 제가 공부한 화가의 인생을 담은 스토리텔링으로 작품을 소개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스토리텔링 방식의 해설 스타일은 전시 관계자와 논의 후에 진행했습니다. 초반에는 전시장에 관객이 별로 없어서 잘못된 선택인가 고민했습니다. 전시 해설을 들은 관객 분들의 반응이 입소문을 타면서 100여 명의 관람객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Q <베르나르 뷔페>전으로 국내 많은 사람들에게 도슨트의 중요성과 그림에 대한 시선을 바꾼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2020년 당시 도슨트 정우철은 베테랑도 아녘고 관련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도슨트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작가라 정보수집도 힘들었거든요. 사비까지 투자하며 일본까지 가서 그림 전시를 봤습니다. 번역까지 따로 요청해서 공부할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전시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퍼졌고 해설 이후

눈물을 흘리는 관객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잘나서라기보다 진심과 열정을 담은 해설 스토리로 눈높이에 맞춘 자세가 통했던 것 같습니다.

Q 예정된 도슨트가 핑크를 내면서 <내셔널지오그래픽 특별전>으로 도슨트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부터 스토리텔링을 녹인 해설이었는데.

시행착오를 거쳐 다듬어졌습니다. 첫 데뷔, 20분은 지금 생각해도 떨립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엉망이었죠. 퇴근하고 작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스피치 훈련도 틈이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도슨트는 대중을 위한 것이기에 그에 맞는 콘셉트로 작가의 인생을 녹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전공한 덕에 시나리오처럼 구성하는 것에 익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Q 비전공자임에도 미술업계에서 도슨트로 활동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미술이 아닌 영화를 전공했고, 영상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았고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도슨트 입문도 어려웠지만, 데뷔를 위한 준비를 늘 하고 있었기에 갑작스런 제의에도 수락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만 두고 보면 참 운명 같은 일이지요. 도슨트로 고전하고 있던 그때, 누군가의 부재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던 저에게 행운이 온 것 같습니다.

Q 힘든 순간, 자신을 끌어준 원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주저하지 말고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도슨트로 입문하기 전까지 방향한 적도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 고민도 많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무엇이든 부딪혀봐야 자신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경험을 해봐야, 자신과 잘 맞는 길인지 알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죠.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 저를 현재까지 이끈 원동력이라 봅니다.

Q 정우철 도슨트님이 생각하시는 '공존'은 어떤 의미인지, 월간 내일 독자 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막막하지만 세상과 부딪히며 얻는 것이 세상과의 공존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부터는 대학원에서 미술공부를 시작합니다. 발전하는 도슨트 정우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3월 말부터 시작되는 <스웨덴 국립미술관 컬렉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림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월간내일> 독자 분들을 뵙겠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경우,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한다. 정리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추진

정부는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7만 개소)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는 것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모니터링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다. 따라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핵심요소	실행방안
경영자 리더십	▶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안전보건인력·예산 배정	▶ 안전·보건 조직·담당자 지정, 권한과 책임 부여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근로자 교육 등으로 유해·위험요인 공유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 산재사고,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TIP5

TIP1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받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TIP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관련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TIP3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으로 알았는데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 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된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며 음식점업이나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TIP4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체크해야 하나?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TIP5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다.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리스트

자가진단표 사업장에서의 안전수준을 진단해보자. 하단의 자가진단표는 지면상 사업장 기본정보, 위험도/대응 정도, 안전보건관리체계 세 가지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항목 파트의 일부를 실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항목-PART

- 1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경영책임자등)가 정하고 있는 명확한 안전방침과 구체적인 목표가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2 **귀사에서는 안전보건 조직 또는 업무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를 정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3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나? (*예_ 개인보호구 구입, 직원 건강보호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 설치 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4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5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근로자들이 회사에 건의, 제안을 자유롭게 하고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6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내용과 안전작업 절차 등을 서로 확인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7 **근로자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8 **사고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계획(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조치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9 **귀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또는 아차사고(다칠 뻔한 사고) 등에 대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실행하고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10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의 얼굴을 밝히는 컬러 찾기

퍼스널컬러 컨설턴트 이세령

자신에게 맞는 컬러 하나로 2~3킬로가 왔다 갔다 한다면.
첫인상이 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인생에서 한번쯤은 나를 위한 '진짜 컬러'를 찾아 볼만하다.

글 정자은 사진 오충근



Q 먼저 자기소개와 함께 관련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퍼스널컬러 컨설턴트이자 컬러플레이스 대표로 활동하는 이세령입니다. 관련 일을 하기 전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기업 강의를 하는 교수라는 타이틀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에 어울리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자신을 분석했을 때 직업과 연관된, 도움 되는 이미지가 부족하던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는 강사, 교수라면 수업을 듣는 청중을 설득시키는 신뢰도가 중요할 텐데요. 보다 좋은 피드백을 얻기 위해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Q 기업 강의 시절, 이미지 메이킹과 연관된 콘텐츠를 기획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업 강의에서 직무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셀프 리더십과 함께 이미지 메이킹까지 연계해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한, 저에게 맞는 콘텐츠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왜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이미지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 관계자에게 비춰지는 첫 인상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Q 요즘 사람들이 퍼스널컬러 찾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연예인이나 유명인만 이미지를 브랜딩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개인 브랜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취업과 이직, 정년퇴임한 중장년층은 제2의 직업을 갖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잘 표현 해내는 것도 하나의 능력으로 간주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면접 준비를 위해 퍼스널컬러 상담을 신청하는 이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면접이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퍼스널컬러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접의 기본 복장은 흰색 블라우스와 검정 재킷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흰색도 톤이 여러 가지입니다. 백색에 가까운 흰색과 아이보리에 가까운 흰색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톤의 흰색이냐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가 지적이거나 온화할 수도, 캐릭터가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퍼스널컬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각 회사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잘 다듬어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퍼스널컬러 컨설턴트가 되려면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된 여러 분야를 공부해 접목시켰을 때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퍼스널컬러 관련 학과는 없습니다. 컬러플레이스를 비롯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컨설턴트를

살펴보면 디자인학과나 메이크업학, 헤어분야를 전공하면서 관련 아카데미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컬러플레이스 내에서도 컨설턴트 커리큘럼을 통해 인재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자격증으로는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있습니다. 아무래도 색깔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관련 일을 하시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은 언제인지요.

퍼스널 컬러 진단은 단순히 컬러만 찾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자의 타고난 성향과 매력을 매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컬러와 메이크업, 심리학, 경제, 패션, 커뮤니케이션 기술까지 연관된 분야를 순차적으로 공부한다면 훌륭한 컨설턴트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직업은 한 사람의 인생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정에서 비포, 애프터가 또렷하게 보이는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퍼스널컬러 컨설턴트에 도움 되는 자격증 정보

‘컬러리스트산업기사’란?
 색채에 대한 전문가. 색채 관련 상품기획이나 소비자 조사, 색채규정 검토, 색채디자인 등에 걸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 색채와 관련된 다른 분야와 협조하면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필기원서접수(인터넷)
 2024년 정기기사 2회-4월 16~19일/ 2024년 정기기사 3회-6월 18~21일

Q 마지막으로 취업준비생이나 관련 직군으로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쿨톤, 웜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신에게 맞는 색상으로 메이크업과 패션, 헤어 등을 완성시켰을 때 충전되는 자신감은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회복이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또 관련 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먼저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을 권합니다. 최근에는 무료진단을 해주는 곳도 있으니까요. 경험을 한 후 스스로 해낼 수 있겠다는 체감이 든다면, 전문기관을 찾아서 양성 과정과 자격증 준비를 통해 순차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의 도약을 지원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지난해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을 넘어,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의 확대 시행으로 더 많은 취업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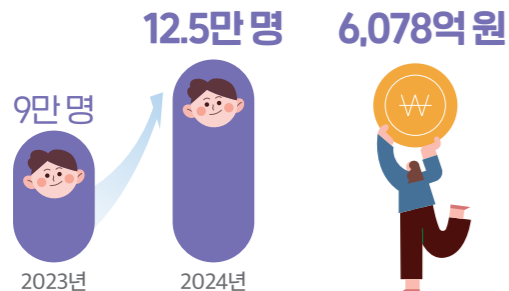
정리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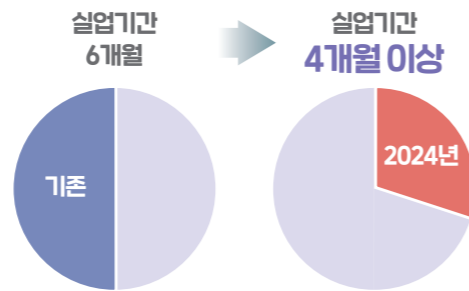
신규 지원 규모 확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9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12.5만 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올해부터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나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규지원 규모



취업 못한 청년 사업참여 요건 완화



최대 1천2백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사업참여 신청 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이다. 다만 지식서비스나 문화콘텐츠 등의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요건



무료교육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하기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괴롭힘에 대한 개념과 예방, 처리 절차 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를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가 조성돼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글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건강한 직장문화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무료교육

직장에서 누군가 괴롭힐 때, 신고방법은 어떻게 할까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해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한다. 동시에 전문강사의 예방 교육과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먼저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용 교육자료>와 <사용자용 교육자료>를 PPT와 동영상으로 각각 제작·보급한다. <근로자용 교육자료>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용 교육자료>는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교육자료는 고용부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 전문강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직접 방문, 실시간 화상, 동영상'의 형태 중 택일해 무료로 지원한다. 3월부터 운영하는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과정도 무료로 운영한다. 교육 신청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니 참고하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내 처리절차를 통한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사용자나 사업장 내 담당직원에게 신고한 후, 취업규칙이나 고충처리절차 등에 따라 해결한다. 둘째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조사/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조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피해자 의사에 반한 비밀 누설 등) 관련 사항의 신고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화면상단 민원신청-서식민원 중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세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인권교육수강 등의 권고가 가능하다. 또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를 할 수 있다.

신고에 필요한 증거수집 방법

신고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객관적 사실 규명/형사적 제재 등을 위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주변 동료들의
증언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



폭언·폭행·부당한
지시가 담긴 녹음,
동영상, 서류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병원진료기록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메모
(괴롭힘이 일어난 장소, 행위, 목격자,
나의 대응·감정상태, 주변인들의 반응 등)

사업장에 전문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교육기간** 연중상시(*12월6일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대상** 중소기업 사업장 및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중소기업융업, 보건, 돌봄, IT 업종 우선 지원)
- 교육비** 무료
- 교육방법** 사업장 직접방문, 실시간 화상, 동영상 교육 중 선택
- 문의사항**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www.keil.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교육공지 참고

고령사회

중장년을 위한 취업 서비스는 따로 있다!

백세시대를 넘어 백이십세시대를 향해 달리는 지금이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현실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중장년을 위한
취업 제도를 펼치고 있다.

글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중장년의 내일을 위해, 취업준비 지원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생애경력설계와 재취업 동기부여, 구직기술 등 습득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애경력설계,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채용 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산업별 특화서비스 및 채용지원서비스 등의 종합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중장년의 고용안정과 재취업의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중장년내일센터는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에 3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민간단체(지역 경총, 상의 등)에서 19개소, 노사발전재단에서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퇴직 예정)자와 구직자, 사업주이다.

심층상담을 통한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중장년내일센터에서 1:1 심층상담을 통해 생애경력설계, 전직스쿨프로그램, 재도약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각종 채용지원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누릴 수 있다.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에도 '중장년 전담창구'가 마련되어 있고, 중장년내일센터의 컨설턴트가 고용센터 내에서 '심층상담-진단-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알선'을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고용서비스를 고용센터에서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중장년을 위한 패키지 서비스?

중장년에 특화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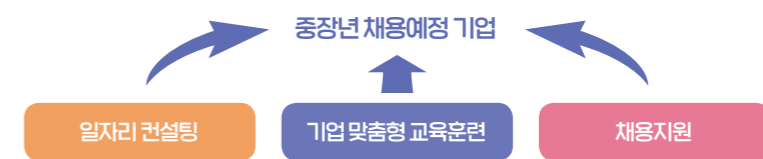
중장년 재취업지원 패키지



기업 지원 서비스도 있나?

중장년을 고용하려는 기업에게 종합적인 채용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주지원패키지는 중장년층 고용확대 등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①고령자 계속고용·신규채용 컨설팅(지원금 연계), ②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훈련, ③'채용지원 전담반'을 통한 집중알선 등 사업주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사업주지원패키지



신청하거나 궁금하다면?

전국 31개 중장년내일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국번없이 1350), 워크넷(www.work.go.kr/senior)

호텔이 초록빛으로 물들고 있다. 바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고객을 끌어당기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었다는 뜻이다. 일회용품에서 다회용으로, 동물성에서 식물성으로, 지속가능한 초록빛 객실로 함께 들어가 보자.

글 이경희

호텔,

환경을 생각하다

ECO-FRIENDLY



🌿 '그린 스테이' 새로운 호텔 키워드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치 소비를 뜻하는 '미닝 아웃'이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호텔업계도 마찬가지다. ESG 열풍과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다. 건강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 이 시간은 호텔마저 친환경으로 바뀌었다.アメニ티의 남용과 호화로운 소비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호텔들이 미닝 아웃 트렌드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호텔이 주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타인이 잘 꾸며놓은 공간을 비싼 값을 치르고 잠시 빌려 쓰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용품은 한 번 쓰고 버려지고 고객 편의를 위한 많은 서비스와 호텔 운영 과정에서도 에너지는 많이 소비된다. 하지만 '친환경'이 호텔에도 스며들게 되면서 호텔 역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금씩 탈바꿈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70% 이상은 평소 친환경 여행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내일>이 발표한 '2021 MZ세대 친환경 실천 및 소비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 참여자 가운데 71%가 '친환경 활동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인식의 전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회용품 비치부터 비건 전용 객실까지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소비패턴에도 영향을 주면서 일회용품의 소비가 많은 호텔 업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롯데호텔은 국내 호텔 최초로 객실에 무라벨 생수를 비치했다. 일회용 욕실용품을 다회용 디스펜더로 교체했다. 이를 국내 17개 호텔에 모두 적용해 범위를 넓혔다. 워커히 호텔리조트는 '비건 전용 객실'을 도입했다. 객실 전체가 비건 인증을 받았거나 친환경, 식물성 용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타월은 공정 무역 라벨이 붙어 있는 것으로 바꾸었고, 쿠션 등의 가죽은 닻나무를 소재로 만든 식물성 한지로 제작했다. 숙소이자 비건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글래드 호텔에서는 '그린 호캉스 시즌 패키지'를 선보였다. 대나무 칫솔 등 친환경アメニ티로 욕실을 구성했다. 이곳의 특이점은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자가용 대신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탄소저감 동참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식사 메뉴 또한 더욱 폭넓어지고 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아몬드 우유를 넣은 비건 빙수와 비건 스무디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비건 푸드를 판매하고 있다.



VEGAN

♻️ ESG 그리고 '좋은 기업'의 기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도 호텔이 보여준 두드러진 변화다. '좋은 기업'의 기준이 ESG를 얼마나 적용하는지 인식이 달라지면서다. 호텔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들은 ESG 경영을 선포하고, 경영성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직접 공유하고 있다. 임직원이 동참하는 기후행동 캠페인과 챌린지도 실시한다.

물론 호텔업계의 이런 노력은 법 개정에 따른 대안이기도 하다. 올해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때문이다. 객실이 50개 이상인 대형 숙박업소에서의 일회용アメニ티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호텔업계로서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이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됐다. 가치 소비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맞물리면서 고객의 불만족으로 이어지기보다 사회 변화에 따른 또 다른 호텔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된 셈이다.

여행·관광산업은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 중 하나인 만큼 호텔 업계의 이러한 노력은 더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기업은 고객이 작은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할 만한 충분한 가치와 이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린 스테이'는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과 우리 모두를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는 것을 말이다.



최근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챗GPT가 대중화되면서 이미지 생성 서비스 역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AI가 그린 그림의 수준은 생각보다 높은 편이다. 그림의 주체가 사람과 AI에서 구분이 안 될 정도이다 보니 저작권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글 한국경제매거진 강은영 기자

AI로 만든 이미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까?

AI 화가의 등장



AI가 그린 그림과 저작권 분쟁

AI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뛰어난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결과물의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을까? 답은 사람의 창작적 개입 여부에 달렸다.

정부가 내놓은 AI 관련 저작권 활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에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하므로 인간(또는 법인)이 아닌 AI 그 자체는 저작자가 될 수 없어 AI를 저작자로 등록할 수 없다. 현행법의 해석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AI 산출물에 수정·증감 또는 편집·배열 등의 작업을 통해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 인정이 가능하다.



미드저니에 로봇과 사람이 공존해 살아가는 미래를 상상해 보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해 만들어진 이미지

학습을 거친 AI의 그림, 문제가 되는 이유

모든 AI는 학습을 거쳐야 한다.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저작권법상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쉽게 설명해 AI가 그리는 그림 자체가 기존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AI 사업자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유 이용 저작물(Public Domain)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취향 따라 사용하는 AI 이미지 생성기

오픈 AI의 챗GPT(Chat GPT)와 달리(Dall-e), 마이크로소프트의 Bing 이미지 크리에이터(Bing image creator), 미드저니 등 생성 AI를 활용해 이미지를 만드는 플랫폼은 다양하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반 고호의 작품을 담은 유화 스타일부터 그래픽 아트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최근 매체들은 주로 챗GPT와 미드저니를 활용하는 모습이다. 챗GPT는 4.0 버전부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며, 한 달에 20달러 정도의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 미드저니 역시 유료 결제를 해야 하며, 플랜에 따라 금액이 상이한데 가장 저렴한 플랜은 한 달에 10달러부터 시작한다. Bing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미드저니 사용법

- 1 미드저니에 접속한다. <https://www.midjourney.com>
- 2 사이트 하단에 Sign in을 클릭해 회원가입 후 유료 결제를 진행한다.
- 3 결제 후 Join the Beta를 클릭해 Discord에 접속한다.
- 4 팝업 안내 창이 뜨면 '초대 수락하기' 클릭한다.
- 5 화면 왼쪽 사이트에 표시된 채널 중 #newbies로 시작되는 한 곳에 입장한다.
- 6 /imagine을 입력한 후 prompt 창이 뜨면 클릭한다.
- 7 원하는 프롬프트를 영어로 입력한다.

1

넓고 오래될수록 짜릿하니까!

힙지로에 이어 '힙'해진 청량리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모든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트렌드'와 '아이디어'이다. <내일, 플레이스>코너에서는 면접과 업무에 영감을 불러일으킬만한 트렌드가 녹아있는 공간을 소개한다. 첫 번째 플레이스는 바로 '힙랑리'다.

글 정자은 사진 오충근

복고의 재해석, 뉴트로 문화에 대한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뉴트로란 새롭다는 의미의 뉴(New)와 복고의 레트로(Retro)가 합성된 말이다. 과거의 것을 그대로 옮겨온 단순한 복고가 아닌 현대에 맞게 해석해 재창조된 '새로운 복고'를 말한다. 때문에 기존의 레트로와는 차별성이 부여된다. 기성세대에게는 과거 자신이 경험한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고, 밀레니얼 세대, MZ세대에게는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문화로 다가온다. 뉴트로 열풍에 힘입어 성수동-을지로에 이어 이제는 청량리가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당신이 아는 청량리 말고, 요즘 '힙랑리'

서울의 옛 관문, 청량리가 변하고 있다. 열차를 타러 오는 일 외에는 굳이 방문하지 않았던 청량리. 이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명칭이 달라지는 분위기다. '힙하다'와 '을지로'가 합쳐져 '힙지로'로 불리던 것처럼, 청량리는 요새 '힙랑리'로 불린다. 기차역과 재래시장 말고는 특별히 찾을 곳 없던 청량리 일대가 고유의 예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새로운 촌스러움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청량리역에서 나오면 과거와 달리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곳곳에 들어섰다. 새로운 주거공간의 등장과 함께 주변 상권도 달라진 모습이다.

힙랑리의 명소로는 경동시장 안에 위치한 '스타벅스 경동 1960'과 '금성전파사 새로고침센터'를 꼽을 수 있다. 1호선 제기동역 2번 출구가 더 가깝지만, 청량리역 1번 출구로 나와 걷는 것이 훨씬 '뉴트로'스럽다. 1번 출구에서 신호등을 두 번 건너면 청량리통닭골목과 청과물시장 등 다채로운 아이템을 파는 서울시장의 모습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획일화된 모습의 대형 마트와 달리, 재래시장을 걷는 골목 사이사이 과거와 현재, 상인과 소비자, 대표와 근로자 다양한 모습의 공존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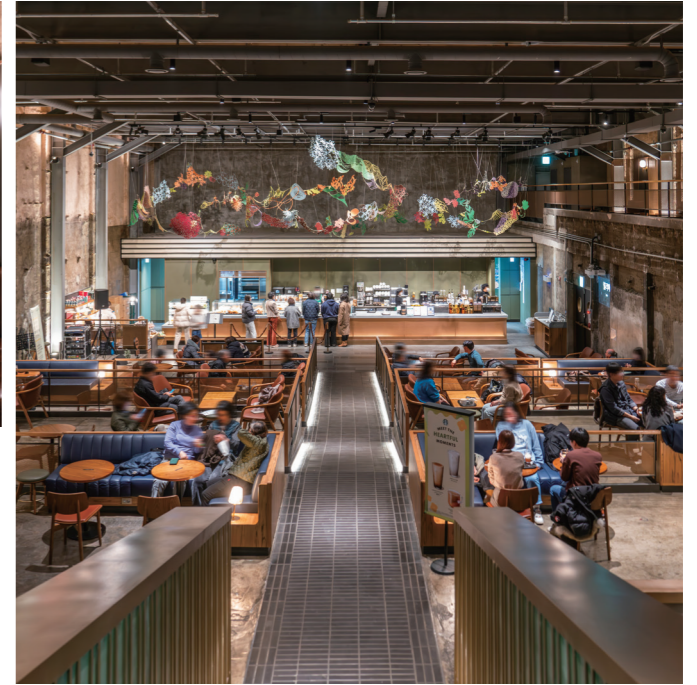
2

백색가전의 투박한 디자인, 아날로그식 레버

경동시장 쪽을 향해 8분 정도 죽 걸다보면 예상치 못한 위치에 스타벅스와 금성전파사 로고가 박힌 간판을 볼 수 있다. 원래 있던 위치, 구조를 그대로 살린 곳이기도 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LG전자와 스타벅스가 경동극장을 리모델링해 뉴트로에 걸맞은 핫플레이스를 조성했다. 간판은 함께 맞이하지만 먼저 접하는 공간은 바로 '금성전파사 새로고침센터'다. 이곳은 LG전자의 옛 모습이 재현된 레트로 콘셉트의 체험 공간이다. 입구에서 방문객을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가상 캐릭터인 '금성아저씨'. 푸근한 옆집 할아버지 같은 인상으로 LG 창업주인 고 구인회 회장을 모티브로 따왔다고 한다. 그 옆으로 LG전자가 금성 시절, 최초로 선보인 냉장고부터 TV, 세탁기를 만나볼 수 있다. 금성전파사는 마음고침과 개성고침, 스타일고침, 기분고침 등의 총 6개 코너로 구성된다. 체험과정에서 LG전자의 제품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개성고침코너에선 폐가전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데, 수익금 전액 경동시장 지역상생기금으로 활용된다.



3



60년대 극장에서 마시는 커피 한잔

'스타벅스 경동1960점'이 다양한 세대로부터 회자되는 것은 바로 1960년대 경동극장을 개조한 곳이기 때문이다. 매장 곳곳에는 1960년대 경동극장 모습이 남아있다. 카페 입구는 극장 문을 그대로 사용했다. 때문에 영화관에 들어가는 기분이 느껴진다. 실내 역시 영화관 내부를 재현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층고가 높고 좌석이 많은 것도 인상적이다. 계단식 구조도 그대로 살려 극장에서 커피를 마시는 기분도 든다. 스크린을 바라보는 영화관 좌석처럼 나란히 앉을 바라보는 좌석도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징이다. 재미있는 점은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가 고객 번호나 닉네임

호명이 아닌, 픽업대 스크린을 통해 나온다. 경동1960에서는 주문자 닉네임이 벽면에 영화처럼 비춰진다. 매장 앞쪽 공간에서는 지역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은 정기적으로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에 오후 6시부터 30분간 진행하니 참고하자.

내일이 전하는 아이디어ONE

뉴트로 현상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

- 한 설문조사 결과, 뉴트로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과거의 것을 좋아하거나 동경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함
- 한 교수는 대형 회사가 주도해 천편일률적이던 문화계에서 대중은 과거의 것을 새롭게 신선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봄
- 한 전문가는 밀레니얼 세대에 익숙한 디지털 시대의 문물이 세련되고 완전한 것과 달리 아날로그적인 것은 투박하고 불완전함이 주는 미학이 있어 매력적인 거라는 해석

01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먼저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합니다. 또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이외에도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 감독 실시할 계획입니다.

02 직장의 모든 노동문제, 원스톱으로 촘촘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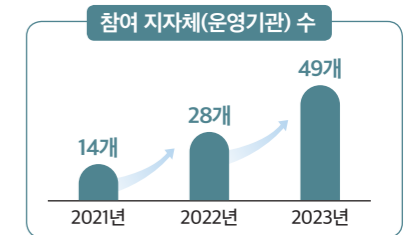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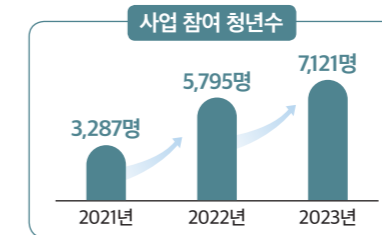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는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점에서 초기상담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상담·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하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초기 상담 부서에서는 주로 임금체불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을 해왔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경우에는 사건으로 제기된 이후에 보면 임금체불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례도 얹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마다 여러 상담창구를 두는

것은 불편을 초래하고,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지려면 상담 이후 바로 신고로 원활하게 연계될 필요성이 컸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초기·전문 등 상담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03 청년도전지원사업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20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이 2월부터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방식은 자치단체 공모 형태로 운영됩니다. 참여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2021년 시범 도입 이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참여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지난해 경우 프로그램 다양화로 참여 청년 등의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04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 원·하청 간 생산과 노동에 대한 상생협력이 확산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상남도도는 2월 14일 한화그룹 본사에서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우주제조업에서 조선업,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에 이어 네 번째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주요 기업과 협력업체가 경상남도에 집중(업종 전체 매출액 75% 차지)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의 지역 단위 상생모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05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도입 기업 간담회



2월 1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인 ㈜센트비를 찾아 현장 사례를 확인하고, 앞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센트비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으로 창업 당시부터 도입한 재택근무를 2023년 고용부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로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현재 근로자 166명의 55%가 사무실 근무(주 3~4일)와 재택근무(주 1~2일)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하고, 9~11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도 50% 이상 근로자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06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대응 결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월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금년 1월 27일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 향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되었습니다. 장관과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간부들과 양 기관의 전국 기관장들이 모두 참여한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최초의 사례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대재해 감축에 양 기관이 혼연일체로 매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 안전행정에 의기 투합하는 자리였습니다.

07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 발표



08

고용보험 기획조사로 부정수급자 218명 적발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 수사 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산재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했습니다.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입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 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 1천만 원을 반환 명령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 수급하여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 출산율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유독 심하다.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를 기후위기에 준하는 이른바 '인구위기'로 여기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
글 강진우 참고 통계청·국가통계포털 외 다수

코앞으로 다가온 인구위기

아이 낳지 않는 대한민국

최근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 저출산 관련 뉴스에는 '인구 위기', '인구 절벽', '국가 소멸'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절박한 당면 과제라는 방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심각한 정도로 아이를 낳지 않는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00년까지만 해도 1.48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14년까지 1~1.3명 사이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다, 2018년 사상 최초로 1명 이하인 0.98명으로 내려앉았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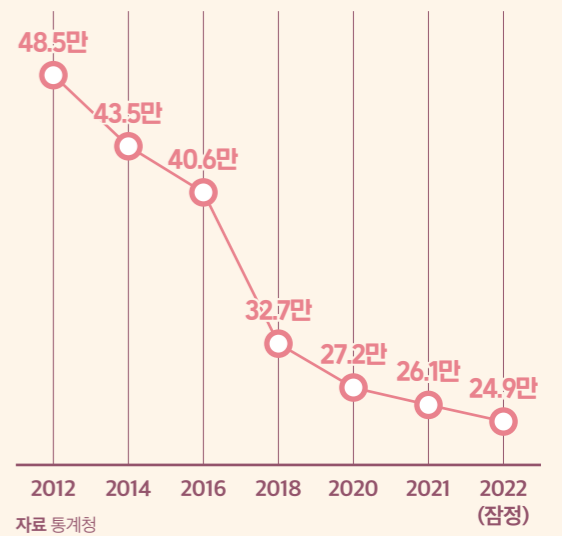
청자형으로 급변하는 인구 피라미드

출산율 급감에 따라 출생아 수, 학령인구, 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2000년 64만 명이었던 출생아는 2022년 25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1,138만 명에 달했던 6~21세 사이의 학령인구도 750만 명으로 약 35% 줄었다. 생산연령인구 중 15~24세는 2000년 770만 명에서 2022년 539만 명으로, 25~49세는 1,982만 명에서 1,860만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50~64세는 619만 명에서 1,275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339만 명에서 898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인구 피라미드도 아래 쪽이 오목하고 위쪽이 불룩한 청자형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양새다.

유독 심각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그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존재한다.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여성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유아기 때부터 이어지는 치열한 경쟁 체제로 인해 사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부모가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주요 이유다. 이외에도 갈수록 힘들어지는 내 집 마련, 엄마와 아기에게 대한 일부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 개인주의와 비혼 풍조 확산 등 사회 전반의 다각적 요소가 저출산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연간 출생아 추이



저출산 대책 마련에 나선 선진국들

전 세계 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현재 3~4세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제공하는 주당 30시간의 무상 보육 서비스를 생후 9개월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는 산후 출산휴가 6개월 연장, 2030년까지 탁아소 20만 개 추가 건립 등의 추진을 발표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국가인 이탈리아는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일본은 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산부가 국가 운영 시설 이용 시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입장하도록 하는 '어린이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2023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2024년부터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천문·기상학 연구원

지적호기심과 통찰력으로 가득 찼다면



지구 대기와 천체의 물리적인 특성,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천문·기상학연구원. 기후변화나 예보, 기초과학 등에 관심이 있는가. MBTI로 성향을 체크해보고 천문·기상학연구원으로서의 자질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보자.

정리 편집실 참고 책 「MBTI 진로탐색」의 다수

INTP의 특징

#직관적 통찰력 #지적 호기심
#논리적 해결방식

“나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에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론 탐구를 즐기고, 말이나 행동은 하기 전 신중하게 생각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죠.”

INTP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동기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은 명확한 이해를 발전시키거나,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하기 위한 과제나 아이디어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을 선호한다. 패턴을 찾는 능력을 통해 불일치를 쉽게 식별할 수도 있다. 또 많은 정보를 유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들의 업무 역량은 독립적으로 또는 소규모 팀과 함께 할 때 잘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I 나의 에너지 방향은?

외향형 E

-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길 원해요.
- 사교적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내향형 I ✓

-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기를 원해요.
- 깊이 생각하고 혼자만의 생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N 나의 인식 기능은?

감각형 S

- 실제의 경험, 현재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직접 관찰한 정보를 신뢰해요.

직관형 N ✓

- 영감, 아이디어, 의미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직감을 신뢰해요.

T 나의 사고 스타일은?

사고형 T ✓

-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길 원해요.
- 일관성, 공정성, 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감정형 F

- 가치관, 공감,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요.
- 조화, 공감,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P 나의 의사 결정은?

판단형 J

- 계획해서 결정을 내리고, 일정을 따르는 것을 좋아해요.
- 명확성,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중시해요.

인식형 P ✓

-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고 선택권을 열어두는 것을 선호해요.
- 유연성, 자발성, 개방성을 중시해요.

나에게 맞는 직업을 알까?

※ 과정평가형지적 실패보기 한국신인력공단 씨큐넷(cq-net.or.kr)



천문·기상학연구원

수리력	방대한 관측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싶다.	지적추구	신비로운 지구·우주의 탄생을 탐구하고 싶다.
컴퓨터 활용	천문 계산 프로그램을 업무에 활용하고 싶다.	외국어	해외 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교류하고 싶다.
하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체, 지구 대기와 기상 현상을 관측하고 싶다. • 대기 자료를 분석해 항해, 기상예보 등의 문제에 적용하고 싶다. 		
취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문대, 기상대, 기상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일하고 싶다. • 기상학 연구원, 기후변화 전문가, 환경공학기술자에 관심이 있다. 		

챗 GPT가 살펴본 직업 전망

해당 분야는 최근 기후변화 트렌드 등과 맞물려 직업 전망은 대체로 밝은 편이다. 환경문제나 우주탐사 등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향후 해당 분야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인재를 필요로 하며 연구, 정책, 예산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는 편이다. 미래에는 AI, 빅데이터 분석, 컴퓨터 모델링 등 분야와 융합한 기술 발전으로 더 효율적인 빅데이터의 시각화, 효율적 알고리즘 개발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다.



기후변화전문가

분석력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탐구하고 싶다.	창의력	탄소 감축·에너지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싶다.
호기심	화학·생물·지질·통계 등 관련 지식을 공부하고 싶다.	통찰력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관찰하고 통합하고 싶다.
하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선방법을 제시하고 싶다. •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분석해 정책을 제안하고 싶다. 		
취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 환경단체, 기상연구소,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 • 자연, 기후변화가 현재 어떤 상태이며 왜 일어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다. 		

환경부,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지정

기후변화전문가는 대개 환경 관련 전공에서 석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환경에 관련된 국제적 트렌드 분석·대응 능력과 정책개발에 대한 경험이 요

구된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2006년부터 기후변화전문가 육성을 위해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 전문가 육성을 해오고 있다. 2024년 기준, 5개 분야, 10개 대학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내가 편안해지는 마음가짐



1
내 마음 건강을 위해
지키려고 노력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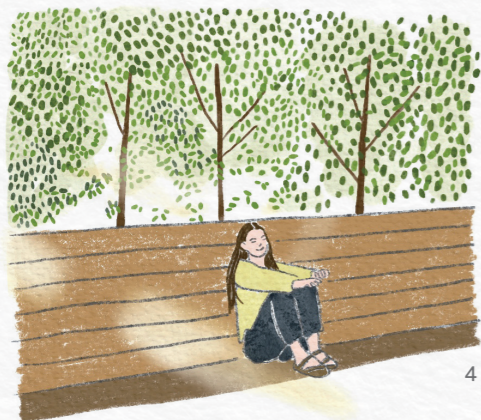


2
내 기준에 맞춰
상대방이 행동해줄길 바라면
관계가 어려워져요.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걸 알기
(상대방의 입장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3
상황 탓, 남 탓하기 보다 내가 할 일에 집중하기



4
마음 속에 미움을 오래 두지 않기



5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연습을 해보는 거 어떡세요?

함께 살아가기



1
함께 살아간다는 건



2
서로를 존중해주며



3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4
서로를 도와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



5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월간내일」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월간내일」 2024년 3월호를 읽고 퀴즈에 응모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QUIZ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Tip) 고용아카이브 코너

Hint!

저드정수초법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2024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제도 이름은 무엇일까요?

Tip)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정책

Hint!

청년일자리 도오르기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참여기간 2024년 3월 20일(수)까지 ※ 당첨자에게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월간내일」 독자 라운지

이번 「월간내일」 잘 읽어 보셨나요? 이번호를 읽으며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이며,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더욱 알찬 「월간내일」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① 이번 「월간내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 ② 이번 「월간내일」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앞으로 「월간내일」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참여기간 2024년 3월 20일(수)까지
※ 당첨자에게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월간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 ①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 ②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